문화평론가 진중권의 누나인 작곡가 진은숙(1961~)은 2007년에 독일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에 그녀가 작곡한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작곡가의 반열에 올랐다. 진은숙은 목사이자 음악애호가였던 아버지로부터 네 살 때부터 기초적인 음악 이론과 악보 읽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보면 부유한 집의 딸 같다. 하지만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그녀는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틈틈이 결혼식 반주 아르바이트를 하여 50원씩 받았다. 밥 한 끼가 약 20원 할 때였으니 당시로서는 꽤 쏠쏠한 벌이였던 것이다.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잘 알려진 박칼린(1967~)도 미국에 공연차 들린 고 박동진 명창의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악과 만나게 되었고, 후에 한국적 색채가 녹아든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 등에서 음악감독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학교종'의 작곡가 김메리(1904~2005)는 이화학당(이화여자대학교 전신)을 졸업할 때까지 기상, 식사, 취침, 기도시간을 알려주는 종치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이때의 경험이 1948년에 작곡한 '학교종'의 밑거름이 되었다.

조선일보의 '이규태 코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규태(1933~2006)는 오히려 음악을 아르바이트로 삼았다. 1950년대에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종로1가에 위치한 음악다방 르네상스에서 디스크자키로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 르네상스는 작곡가 백병동(1936~), 강석희(1934~)부터 문학평론가 이어령(1934~) 등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의 집합지였었다. 그들이 회고하는 젊은 시절 속의 이규태는 '디스크자키 이규태'로 기억된다. 또, 그런 음악적 감수성이 뒷받침되었기에 이규태가 왕성한 문기(文氣)를 뿜어냈던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많은 이들이 음악가는 속세와 담을 쌓고 예술에만 매달리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풍족한 가문의 자제이기에 세상 물정에 초월하여 돈 안 되는 예술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음악가에게나 가난했던 젊은 날의 시절이 있다. 어쩌면 그 때 그 시절의 아르바이트는 자신의 예술이 언젠가는 꽃피울 것이라는 믿음에서 택한 임시방편이 아니었을까. '이것으로 버티자, 나는 언젠가 높이 날 것이다.' 라며.

古典名句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화복무문 禍福無門, 유인소소 惟人所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에 선박 운항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는 그런 염원을 담아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 2015년 9월에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일어났다. 탑승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가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구명조끼라도 입었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다. 나아가 "안전수칙을 지켰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불행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하여 반복되고 있다. 이를 두고 "행운은 겹쳐서 오지 않지만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福無雙至, 禍不單行) 왜 바라는 행복은 하나라도 찾아 올까말까 하지만 불행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닥쳐오는 것일까? 『좌씨전』 양공 23년을 보면 **"행운과 불행이 찾아오는 특별한 문(원인)이 없다. 오로지 사람이 초래할 뿐이다."라고 한다(화복무문禍福無門, 유인소소惟人所召).** 우리는 불행이 거푸 생기면 혹시 신적 존재가 노여워서 그런 일이 생긴다거나 운수가 좋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를 받을지 모른다. 하지만 행운과 불행은 모두 사람이 한 일의 결과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인과응보이다.

차, 배, 비행기 등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아무리 세세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돌고래호 사고도 액운이 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부터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언론은 공동체에 큰 재앙이 한번이라도 생겼다면 공동체에서 그 원인을 찾아 감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난 뒤에 지면(紙面)에서 질타와 한탄을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지면(地面)을 샅샅이 훑으며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